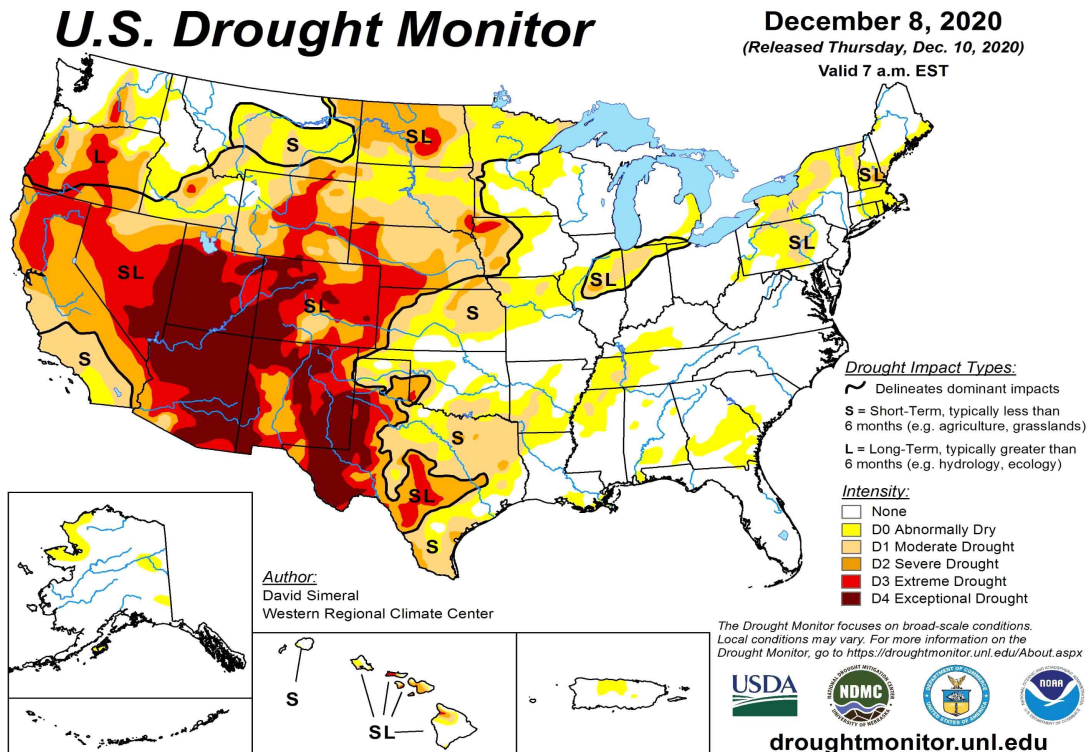


12월 1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50)

□ 미국 기후 현황(12/6~12/12)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전국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여 비수기 야외 작업과 농장 유지 활동에 도움을 주었지만 어떤 지역은 가뭄의 축적이 확대되면서 불리한 건조 상태에 놓여 있었다. 12월 8일,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가뭄이 서부 11개 주의 78.5%와 미국 본토 48개 주의 49.1%를 덮었다. 서부의 여러 지역에 대체로 가벼운 강수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폭풍우는 대부분 태평양 북서부에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주간 늦게 강수가 캘리포니아 중부처럼 먼 남쪽까지 퍼져서 내렸다. 또, 남서부 일부 지역에는 아주 필요했던 비와 눈이 다양한 수준으로 내렸다. 그 외의 지역 중에서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은 날씨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건조했지만 대조적으로 평원 중부와 남부에서 중남부와 중서부 아래쪽까지는 대체로 가벼운 강수가 내렸다. 그러나 12월 11~12일에는 네브라스카 남부에서부터 미시간 아래쪽의 북부까지 중서부를 가로질러 하나의 띠를 이루며 수인치의 눈이 쌓였는데 다만 남쪽으로는 1인치 이상의 비 (그리고 진눈개비)가 내렸다. 12월 초에 발달하기 시작했던 따뜻한 날씨 양상이 더욱 증폭되면서 미국 북중부 일부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20° F 가량 높았다. 남부 지역은 서서히 온화한 날씨로 되돌아왔지만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 걸쳐서 계속된 냉기가 기온을 평년보다 5~10° F 낮게 붙잡았다. 12월 9일, 오키초비 호수 근처의 플로리다 남부 내륙처럼 먼 남쪽에 산발적인 서리가 보고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2/6~12/12)

■ 유럽: 날씨가 습했던 서유럽과 남유럽 전역과 대조적으로 북동부 재배 지역은 기상 상태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다.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륙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계속 회전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대륙의 서쪽과 남부 대부분을 가로질러 5~75 mm의 비와 산지 눈(액체 등량)을 만들어 내었다. 이 강수는 영양기(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휴면기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알맞은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중해의 습기와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 서부의 산들이 상호작용하는 유럽 중남부에서 과도한 비와 산지 눈(100 mm 이상의 액체 등량)이 봄비의 강수량 전망은 상승시켰으나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켰고 여행을 중단시켰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이탈리아 북동부와 주변에 역사적인 비와 산지 눈이 보고되었는데 15일간 강수 총량은 알프스에서 500 mm(지역적으로 700 mm를 넘음)에 달했다. 대조적으로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고기압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했는데, 이곳의 30일 강수량은 평년의 25% 이하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격심한 단기 건조가 10월 폭우의 뒤를 바짝 따라왔기 때문에 그 건조는 전반적으로 유익했다; 더욱이 현재 겨울 작물들이 휴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건조한 날씨 영향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평년보다 더 서늘한 조건(평년보다 최대 2°C 낮음)에 있었고 대조적으로 남동부 재배 지역은 더 따뜻한 날씨(평년보다 2~5°C 높음)로 돌아갔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는 산발적인 소나기(5~30 mm)와 더 서늘한 날씨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영양기 여름 작물들의 재배 조건을 개선했지만 더 심한 폭우 때문에 지역의 겨울 작물 수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 있다. 서늘한 날씨가 빅토리아 북부와 남호주에도 퍼졌지만 다소 건조한 날씨가 밀, 보리 및 캐놀라 수확에 유리했다. 서호주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만연하여 겨울 작물의 건조와 수확을 촉진했다. 평균 기온이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1~2°C 높았고 남호주, 빅토리아 및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2~5°C 낮았다.

■ 아르헨티나: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일주일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여 여름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고 겨울 곡류의 성숙과 수확을 진척시켰다. 대부분의 서부 농장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C 이상 높았는데 라 팜파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40°C까지 상승했다. 주말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 다시 소나기(총 5~25 mm 강우)가 내렸지만 다른 곳은 아주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렸다. 남서부는 대부분의 작물이 성숙에 이르렀지만 강우가 단기간의 극심한 더위를 끝냈고 미성숙 겨울 곡류에 대한 수분을 추가 상승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0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63% 및 62% 파종되어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 면화 파종은 13 포인트 진전되어 56% 완결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1 포인트 뒤쳐진 것이었다. 한편, 밀은 5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뒤쳐졌다.



■ 브라질: 지난 주와 반대로 남쪽으로 상태가 더 건조해졌고, 브라질 중부와 남동부의 넓은 지역은 지역적 폭우가 뒤덮었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 남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전체로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가깝게) 였다. 대두, 1차 재배 옥수수 및 사탕수수와 커피 같은 기타 작물들에게, 특히 마토 그로소에 있는 이전에 건조했던 농장 지역에서는, 이 수분은 단비였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리오 그란테 도 술 북부까지 뻗어 있는 지역의 많은 곳의 날씨를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에, 대부분의 지역에 10 mm 미만의 비가 내리면서 다시 대체로 건조해졌다.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 남쪽으로 파라나 남부와 파라과이까지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 (섭씨)에 도달하는 여름 더위로 모든 지역에서 작물의 수분 수요는 계속 높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옥수수의 49%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대두는 23% 였다. 리오 그란테 도 술에서 옥수수와 대두는 12월 10일 현재 각각 87% 및 80% 파종되었고 출현한 옥수수 중에서 64%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